

하나님께 쓰임받은 사람 모세

■ 본문

출 3:1-12

■ 시작 찬송가

357, 288, 86
(통 397, 204, 86장)

■ 헌금 찬송가

88, 182, 210
(통 88, 169, 245장)

▶ 모세의 생애

- (1) 애굽에서의 생활
 - 레위족에서 출생 (출2:1)
 - 아므람과 요게벳의 아들 (출6:20)
 - 아론과 미리암의 형제 (출 15:20)
 - 애굽의 궁에서 성장함 (행 7:21-22)
 - 미디안으로 피신함 (출2:15)
- (2) 이스라엘의 지도자로서의 생활
 - 호렙산에서 하나님의 소명을 받음 (출 3:10)
 - 아론을 만남 (출 4:27)
 - 바로와 이스라엘 앞에서 거부당함 (출 5:1-8)
 - 유월절의 예를 정함 (히 11:28)
- (3) 광야의 생활
 - 시내산 도착 (출19:1)
 - 십계명을 받음 (출 31:18)
 - 가나안을 향해 감 (민 10:11-12)
 - 모세의 범죄 (민 20:12)
 - 모세의 죽음 (신34:5-6)

모세는 하나님 앞에 부름받을 때 나이가 80이었습니다. 자신은 이제 능력이 전혀 없다고 생각하였습니다. 그때 모세는 시내 산에서 하나님께 부르심을 받고,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모든 대적과 싸워 이기고 승승장구, 백전백승의 승리자의 삶을 살아갔습니다. 교인도 나의 생각보다 더욱더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하나님께 전적으로 매어달릴 때 하나님은 우리를 통하여 모세같이 큰일을 이루십니다.

출 3:2 여호와와 사자가 떨기나무 가운데로부터 나오는 불꽃 안에서 그에게 나타나시니라 그가 보니 떨기나무에 불이 붙었으나 그 떨기나무가 사라지지 아니하는지라

출 3:12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으리라 네가 그 백성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후에 너희가 이 산에서 하나님을 섬기리니 이것이 내가 너를 보낸 증거니라

1. 쓰임받은 모세

1) 세상의 것을 버리고 믿음을 가질 때 쓰임받습니다.

우리가 어떤 모양으로든지 주의 일을 할 때는 나의 잘난 것 가지고, 말 잘하는 것 가지고, 세상에 있는 것 가지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젊은시절의 모세는 힘도 있고 지식도 있고 권력도 있고 애굽의 부귀영화를 다 갖고 있었지만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쓰지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모세가 노인이 되어 아무 힘이 없을 때 80세에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고 나왔습니다. 하나님께 순종하며, 하나님만 바라고 의지하니까 바로와 싸워서 이기고 장정만 육십만이나 되는 큰 무리를 이끌고 홍해를 건널 수 있었습니다.

2)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능력이 나타납니다.

하나님의 일을 할 때 우리는 아무것도 염려할 필요가 없습니다. 모세도 처음에는 염려를 많이 했습니다. ‘내가 이미 노인인데, 바로와 그 군대가 강한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내 말을 안 들으면 어떻게 하나?’ 그러나 그런 것이 문제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와 함께하시겠다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내시면 다른 건 다 예비해 주십니다. 내가 하는 것이 아닙니다. 일은 하나님이 하시고 우리는 하나님의 심부름꾼일 뿐입니다. 부름받은 교인들은 기도하고, 순종하면서 가기만 하면 됩니다.

출 4:12 이제 가라 내가 네 입과 함께 있어서 할 말을 가르치리라

3) 쓰임받은 자는 성령님의 도우심을 구해야 합니다.

성령은 히브리어로 루아흐(רוּחַ), 헬라어로 프뉴마(πνεῦμα ἅγιον)입니다. 성령은 삼위일체 하나님의 한 위격이십니다. 성령이 임하시면 권능을 받고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는 능력을 얻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어눌한 모세를 들어 쓰셨습니다. 쓰임받는 성도의 삶이란 기도 많이 하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능력으로 감당하는 삶입니다.

민 11:17 내가 강림하여 거기서 너와 말하고 네게 임한 영을 그들에게도 임하게 하리니 그들이 너와 함께 백성의 짐을 담당하고 너 혼자 담당하지 아니하리라

2. 모세의 기도 (출17:9-11)

1)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들고 기도함

모세의 지팡이는 ‘하나님의 지팡이’였습니다. 이적과 권능은 하나님의 것입니다. 모세가 기도할 때 이 지팡이를 들었다는 것은 하나님의 권능과 이적이 함께 해주시기를 간구했다는 뜻입니다. 우리는 권능의 손을 들어 기도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을 향하여 들려진 손을 붙드십니다.

출 17:9 모세가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우리를 위하여 사람들을 택하여 나가서 아말렉과 싸우라 내일 내가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잡고 산 꼭대기에 서리라

2) 산에 올라가 기도함

모세는 산에 올라가서 기도하였습니다. 산은 높은 곳이고, 하나님이 계신 곳입니다. 오늘날 우리에게 기도의 산은 교회입니다. 교회는 축복의 집입니다. 교회는 세상의 모든 보화가 감추어진 곳입니다. 교회는 기도하는 집입니다. 교회에서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응답하십니다. 교회를 통하여 감추어진 보화가 열립니다.

3) 모세의 기도 동반자로서 아론과 훌

모세가 전쟁을 위하여 기도할 때 아론과 훌이 기도하는 모세를 동반하여 그를 도왔습니다. 모세의 기도하는 손이 내려오면 이스라엘이 지게 되므로 손이 내려오지 않도록 붙들고 있어야 했습니다. 이는 혼자 기도하는 것보다 함께 기도하는 것이 낫다는 것을 교훈하고 있습니다. 몇 사람이 함께 기도하는 것보다 온 교회가 함께 기도하면 더 놀라운 기도의 응답을 기대할 수 있는 것입니다. 교인은 아론과 훌처럼 교회를 위하여 기도해야 합니다.

출 17:12 모세의 팔이 피곤하매 그들이 돌을 가져다가 모세의 아래에 놓아 그가 그 위에 앉게 하고 아론과 훌이 한 사람은 이쪽에서, 한 사람은 저쪽에서 모세의 손을 붙들어 올렸더니 그 손이 해가 지도록 내려오지 아니한지라

행 12:5 이에 베드로는 옥에 갇혔고 교회는 그를 위하여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하더라

▶ 모세의 인품과 기도

1. 인품

① 믿음이 있음 (히 11:23-28)
믿음으로 모세는 장성하여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 받기를 거절하고...(24절)

② 신실함 (민 12:7)

내 종 모세와는 그렇지 아니하니 그는 내 온 집에 충성함이라

③ 온유함 (민 12:3)

이 사람 모세는 온유함이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더하더라

④ 존경을 받음 (출 33:8)

모세가 회막으로 나아갈 때에는 백성이 다 일어나 자기 장막 문에 서서 모세가 회막에 들어가기까지 바라보며

2. 기도 (출 17:9-11)

① 여호수아에게 예고함(9절)

모세가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우리를 위하여 사람들을 택하여 나가서 아말렉과 싸우라 내일 내가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잡고 산 꼭대기에 서리라

② 이스라엘의 승리를 위해 기도함(11절)

모세가 손을 들면 이스라엘이 이기고 손을 내리면 아말렉이 이기더니

결론

1. 내 것이 아닌, 하나님을 의지하는 믿음을 가질 때 쓰임받습니다.
2.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능력이 나타납니다.
3. 부름받은 자는 성령님의 도우심을 구해야 합니다.

공동 기도 제목

1. 나라와 민족의 통일을 위하여
2. 대통령과 3부요인 및 여야의원들과 국가안보를 위하여
3. 북한 공산주의자들의 회개와 굶주리는 주민들을 위하여
4. 군에 입대한 자녀들과 해외유학생들을 위하여
5. 질병으로 고생하는 성도들 및 해외선교사를 위하여
6. 탈북자와 새터민, 이주노동자들을 위하여
7. 에너지(물, 전기 등) 절약을 통한 생태계 환경보전을 위하여
8. 아동성소병원과 지역복음화를 위하여
9. 저출산, 고령화시대에 출산장려를 통해 생육하고 번성하도록